

# 한복 맞추는 당신이 알아야 할, 5분 용어 가이드

H:SOK에서 일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, 한복 관련 용어들을 접하고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다른 팀원들에 비해 비교적 나중에 합류했거든요. 아마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 글에서는 한복을 맞출 때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용어 몇가지를 알려드릴게요:)

## 재질

한복의 재질은 본견과 인견으로 나뉩니다. 본견은 명주실(누에🐛고치 실)로 짠 비단이고, 인견은 인조적으로 만들어낸 비단이에요. 재질에 관한 용어가 다양해 헷갈릴 수 있으니, 간단히 표로 정리해봤어요.

	본견(=실크, 비단)	인견(=물실크, 화섬)
장점	- 재질 상 빛을 잘 머금어 고운 빛깔을 낼 수 있어요 - 염색이 잘 배어들기 때문에 색감의 선택 폭이 넓어요	- 가정에서 물세탁이 가능해요💧 - 본견에 비해 구김이 덜해요 - 저렴하고, 오래 보관 가능!
단점	- 햇빛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으면 누렇게 변색될 수 있어요 - 드라이클리닝 필수! - 구김이 잘 생겨요😓	- 빛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, 원단이 반짝거리는 감이 있어요 - 정전기가 잘 나요 - 본견에 비해 색감 표현이 한정적이에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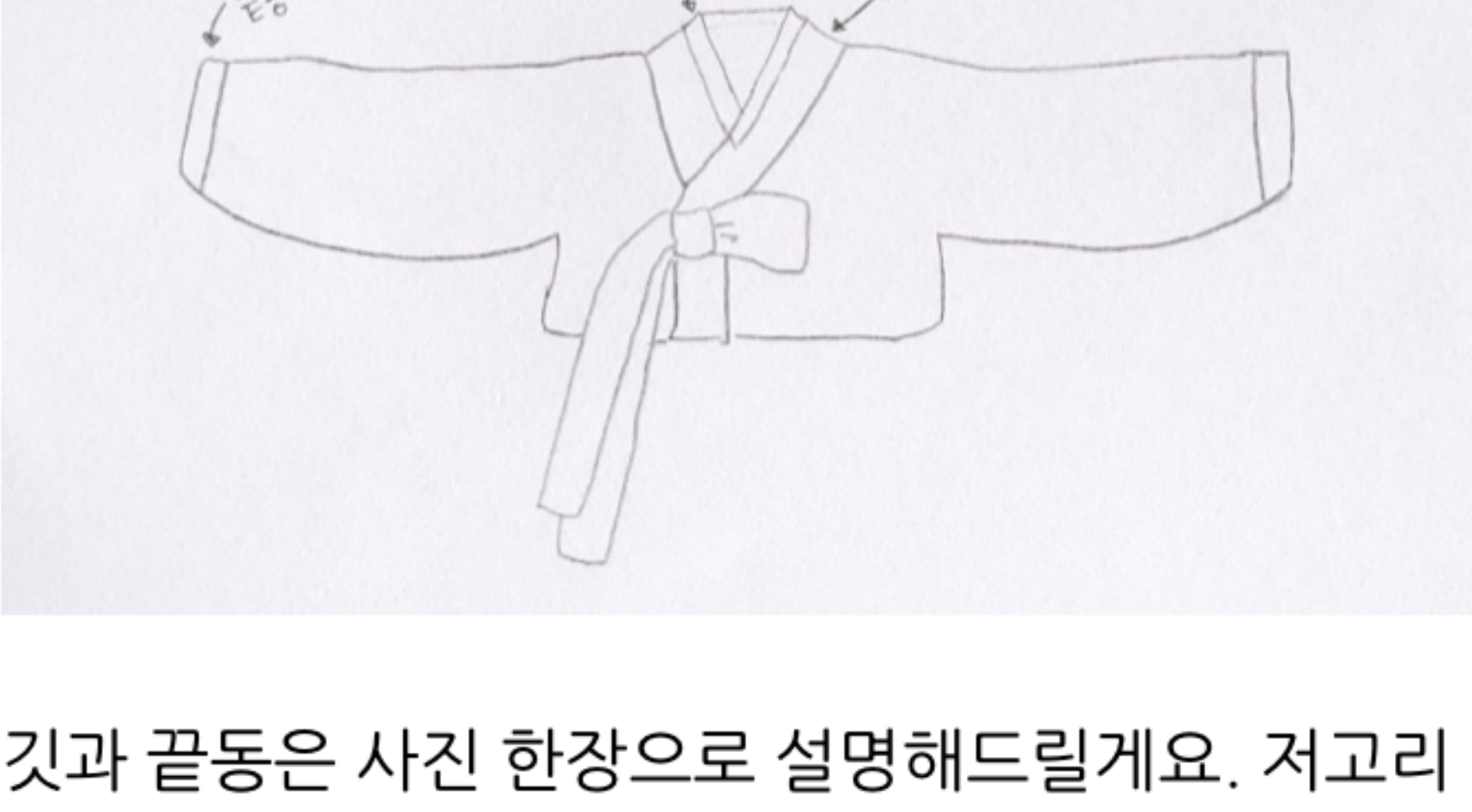
## 자수



손수	기계수
- 장인이 직접 손으로 놓은 수 - 조금 더 두툼해서, 입체감 있는 느낌이 나요	- 기계로 놓은 수 - 손수에 비해 가격대가 저렴해요

자수에는 손수와 기계수가 있어요. 손수에 비해 기계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, 품질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. 한 땀 한 땀 놓은 자수에 담긴 정성이 다르지요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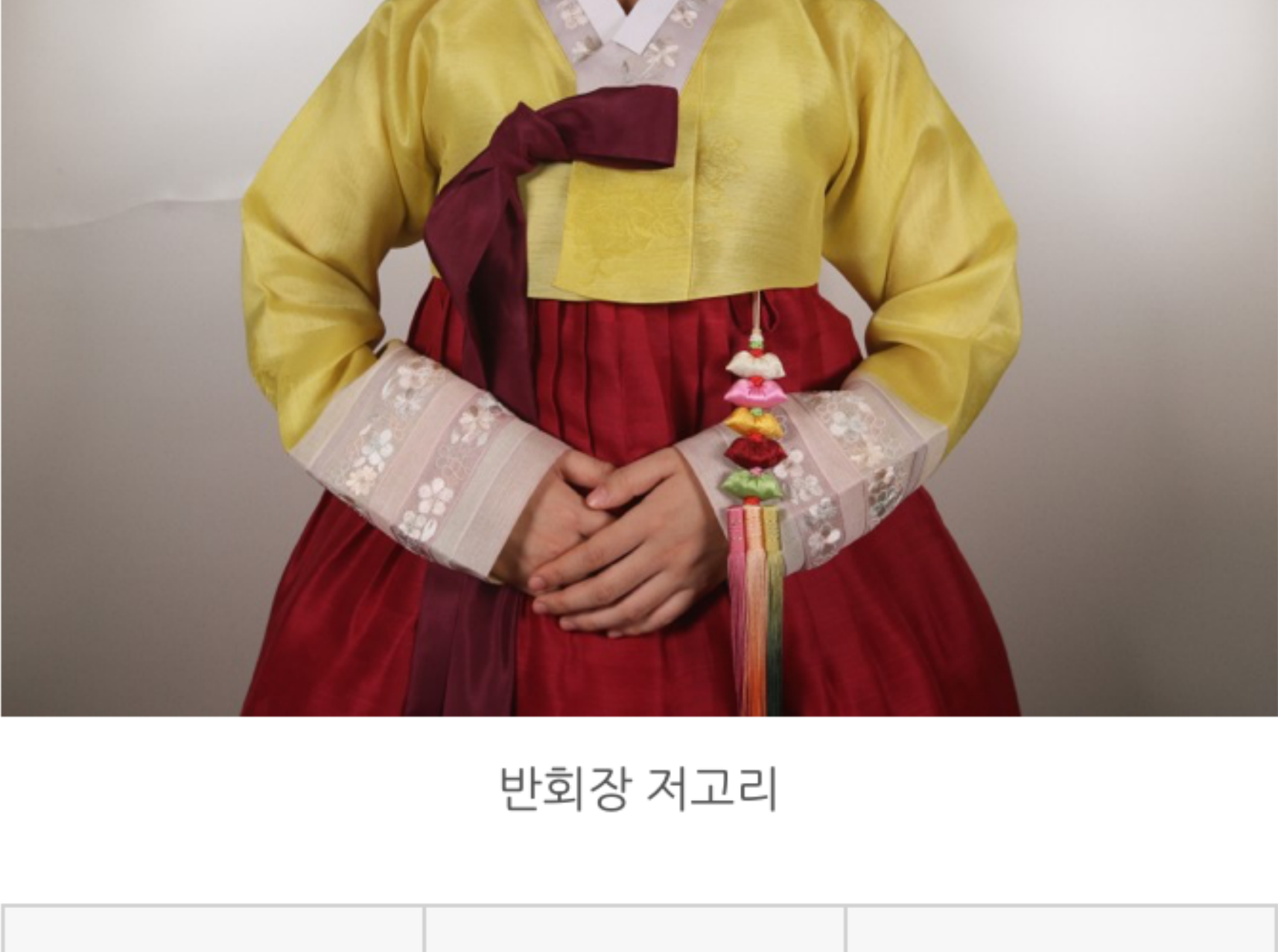
## 깃과 끝동



깃과 끝동은 사진 한장으로 설명해드릴게요. 저고리에서 손목 쪽에 원단을 덧댄 부분이 '끝동', 목 부분을 두르고 있는 부분이 '깃'입니다. 이 두 부분에 자수를 더해 한복을 맞추기도 해요.

## 저고리

저고리는 민저고리, 반회장저고리, 삼회장저고리.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



반회장 저고리

민저고리	반회장 저고리	삼회장 저고리
깃, 끝동, 고름, 겨드랑이 부분에 다른 색의 원단을 대지 않고, 한 원단으로 만든 저고리	끝동, 깃, 고름 부분에 다른 색의 원단을 덧대어 만든 저고리	반회장 저고리의 겨드랑이 부분에 다른 색 천을 덧대어 만든 저고리

준비한 용어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한땀에서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한복 건적 받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😊